

원희룡 “제2공항 여론조사는 참고용일 뿐”

도정질문서 “주민투표 차선책으로 방법 고민중이다” “반대 기정사실 의도·방향이라면 참고 가치도 없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 ‘구속력 없는 참고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만약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가 있다면 국토부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존중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둘째날에도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이 쟁점이 됐다.

이날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추가질문에서 “여론조사가 제2공항 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의사결정방식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민 의견수렴에 대한 원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우선 원 지사는 도민 여론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바람직하지만 법에 의해 주민투표를 하도록 돼있는 국토부가 선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여론조사를 포함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원 지사는 오 의원의 “만약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가 49대 51로 나올 경우 제2공항 건설 추진은 좌절되는 거냐”는 질문에 “여론조사는 구속력이 없고, 의사결정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어떤 나라든 어떤 집단도 여론조사로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 없다. 참고용일 뿐”이라면서 “1~2% 차이에 따라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만약에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런데 여론조사가 반대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의도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예를 들어 가



18일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능하지 않은 방안을 내놓거나, 여론조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고의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함께 원 지사는 여론조사를 성산을 주민으로 한정해야한다는 성산읍추진위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5년간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

을 받아왔고, 제2공항이 추진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게 성산을 주민”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성산을 주민 의견이 좀 더 수렴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도의회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 방식을 통한 여론수렴방안에 대해서는 “도민 전체 여론이나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총체적 문제” “시설공단 조례안 상정·통과시켜달라”

이경용 ‘도정 책임론’ 맹공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흥·대륜동·사진)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총체적 문제를 열거하며 ‘도정의 책임론’을 도마에 올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선 방안 마련 요구에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우선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이 생겨나고 공기관 대형 등 위탁사업의 증가 추세, 공기관 위탁 사업의 증가는 행정이 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이 해야할 일을 공기관에 맡기고 정작 행정은 관리·감독 기능만 치중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운영비와 인건비 증가 문제와 함께 일부 기관은 경영실적 부진 및 기업평가 하락에도 임원 평균연봉이 전국 시도 유사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

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모두가 교통분담을 강조하는 시기에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정 운영과 관련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진단 실시 문제, 제주도의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도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장과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문제, 경영구조개선 요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가 기관장들을 임명해 놓고 경영문제를 방지한다는 지적도 언급하면서 “임명권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임원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 “보안방안 마련할 것”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1년 넘게 표류중인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공식 요청했다. 원 지사는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시설공단 추진 의지를 묻는 질문에 “의회가 염려하는 부분은 보안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면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통과시켜주시기를 도의 공식 입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의회에서 현재 해당 업무 종사인원들의 공단으로의 이전, 이후의 노사관계 관리, 비용증가 우려 등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런 점들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운용의 묘,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오 의원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제주 시설공단 조례안’과 관련 “도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정당, 지역 등 각종 이해관계로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나 정당 당이 하나의 당론을 통해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심의해 찬반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 시설공단 조례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 도의회 7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제출했지만 당시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두차례(7·9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면서 의회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수정가결)했지만 전임 김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이후 후반기 의장이 좌남수 의장도 상정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19일 도정질문 요지

제주도 개발·보전에 대한 정책 방향은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제위원회)=대권 도전 선언 언제, 어떤 내용과 형식을 통해 도민들에게 할 것인지, 제주도 개발과 보전에 대한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 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차고지 증명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 사용기간 연장협의 추진계획은.



제주형 뉴딜 컨트롤타워 구축 방향은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충혼묘지 박진경 대령 추모비 이전 및 철거 주장에 대한 견해는, 다크투어리즘 유적지 관리 대책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방안은, 공동주택관리지원 기구 설립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항후 제주형 뉴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방향은.



드림타워 우수·교통량 등 해결 방안은

▶문경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체육위원회)=드림타워 개장 관련 우수량 관리 방안과 노형오거리 교통량 분산 대책, 빛반사 문제 해결 방안은,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관광산업 회생방안은.



메가FTA 출범에 대한 대응 방향은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제위원회)=읍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반영 의지는, ‘메가FTA(RCEP)’ 본격 출범에 따른 대응 방향은, 발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부권역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 지원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대권 도전 따른 도정 공백 극복 방안은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대권 도전 관련 출마 당시 도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과 도정 공백 극복 방안은, 코로나19 정책 대응과 관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정 정책 미흡에 대한 견해는, 지방채 발행과 상환 계획 적정성에 대한 입장은.



코로나19 민생경제 극복 대책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대책과 임기제·개방형 인사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은, 지역화폐 추진과 2030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 유치 준비 과정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양성평등 구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은

▶오대희 교육의원(교육위원회)=도민건강 적신호에 대한 해결방안과 보건예산 확충 의지는, 유배길 지정 후 관리 부실 민원에 대한 해결 대책은,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및 관리직 비율 확대 등 양성평등 구현과 ‘유리천장’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와 방향은.



2021년도 한라일보 갤러리ED 대관 계획공고

한라일보 갤러리ED에서는 미술 분야의 우수한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미술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년도 대관 계획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개인 및 단체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대관진행 절차

사전 문의	대관 신청서 접수	대관 심의 적정 여부 및 일정 조정	대관 여부 통보	대관 계약 체결
-------	-----------	---------------------	----------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층

대관문의
064)750-2543

Gallery ED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공사 기능인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구직자 / 재직자 / 영세사업자 등
- 7개월(09:00~16:00) 성실하게 수료하고
고용보험 취업가능 하신분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학생등 제외

교육기간
근시일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 취업 |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세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w.com

예언의 집

권

운세, 운명을
기도(도법)로
정성으로
풀어 드립니다.

직접상담
010-5736-6951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남 유옥종 010-5015-1951